

# 안철수, 용산 경고에 숨 고르기...“윤핵관 표현 안 쓰겠다”

배식 봉사 등 일정 돌연 취소

이진복 수석 국회 찾아 경고 요청

정진석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을 임중희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6일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국회에 보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 같은 요청을 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했다.

안 후보가 최근 당원들을 만나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라고 강조하고, 경쟁자 측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정 위원장에게 “안 후보가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안 후보의 ‘윤안 연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후보는 간신배나,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은 자꾸 들먹이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데, 스스로 자제하길 바란다”며 “도가 지나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대 레이스 개막 이후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에 대한 비판 강도를 거침없이 끌어올려

왔지만,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공개 경고를 내리는 상황이 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 생방송 출연 이후로 예정된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와 KBS 대담 출연 등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갑작스러운 공지여서 배경을 놓고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선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잠정하는 것은 아니고 캠프에서 정책 구상에 몰두하면서 내일 예정된 일정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본인도 대통령실 문제 제기에도 수긍하는 모양새로 ‘확전’은 피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적한 ‘윤안(윤석열-안철수) 연대’란 표현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란 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그런 어감들이 있어서 저도 쓰지 않기로 했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사실은 제가 몰랐었다”고 해명했다.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했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공정선거를 우려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 유념해서 전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내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이재명·김건희·천공 의혹 충돌

여야 검찰 수사 놓고 격한 신경전

6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각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성격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격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를 받은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상 국가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개인 비리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야당은 검사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다”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정재태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건 지난 정부에서 (당시 법무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며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했겠느냐”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아주까리 기름을 먹나. 왜 이렇게 간족거리냐”며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도 거론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집권 여당 대표를 누구를 시킬 것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총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역술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한덕수 총리는 천공 관련 의혹에 대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관련자들도 얘기했고 경호처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당정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입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는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실중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

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

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변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며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 안철수 36.9%·김기현 32.1%... 오차범위 접전

조원씨앤아이 국힘 전대 여론조사

천하람 8.6% 컷오프 기준선 4위

최고위원 조수진 13.2%로 1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3·8 전당대회 당 대표 적합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3~5일 국민의힘 지지층 384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안 후보는 36.9%, 김 후보는 32.1%로 각각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4.8%포인트(p)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가 9.3%, 천하람 후보가 8.6%로 컷오프(예비경선) 기준선 4위안에 들었다. 조정태 후보는 1.9%, 윤상현 후보는 0.7%로 각각 조사됐다.

양강 구도를 보이는 김·안 후보의 지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안 후보(40.1%)가 김

후보(29.6%)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는 안 후보 37.4%·김 후보 34.3%, 대구·경북에서는 안 후보 37.9%·김 후보 33.1%로 오차 범위 내였다.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에서는 조수진(13.2%)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정미경(8.8%)·민영삼(8.0%)·허은아(7.9%)·김재원(7.4%)·김용태(5.3%)·태영호(5.1%)·김병민(4.8%)·박성중(2.9%)·이용(2.2%)·이만희(1.4%)·문병호(1.3%)·천강정(1.3%) 후보 순이었다.

정년 최고위원의 경우 장재현 후보가 35.9%로 선두였고, 이어 김기람(7.5%)·구혁모(5.0%)·김영호(4.3%)·이욱희(3.6%)·지성호(3.5%)·이기인(3.3%)·김정식(2.8%)·양기열(2.8%)·육지원(2.6%)·서원철(1.3%) 후보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응답률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